

번호 02-3

제 목	국문	건강 진단 수검 여성들의 유방자가 검진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정도에 관한 연구				
	영문	The Knowledge and Practice of the Breast Self-examination in Women Who Got Health Check up	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정 수진, 최 순석, 박 준환, 엄 상화, 정 귀원, 이 채인, 배 기택				
	영문	Soojin Jeong, Soonseok Choi, Junhan Park, Sanghwa Urm, Kuiwon Jeong, Chaeun Lee				
분 야	보건관리 ()	발 표 자	일반회원 ()	발표 형식	구 연 (○) 포스터 ()	
	역 학 (○)		전 공 의 (○)			
진행 상황	연구완료(○), 연구중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의 발생빈도는 전체 여성암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1960년대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유방암의 조기진단을 위해서 미국 암 협회에서는 유방자가 검진 및 의사에 의한 유방의 이학적 검사, 유방 조영법 등을 권장하고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자가 검진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정도, 그리고 유방자가 검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유방자가 검진의 교육 홍보 및 확대 실천 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1) 연구 대상 : 1997년 12월 1일 ~ 1998년 2월 28일까지 서울의 모 대학병원 두 곳의 종합건강 진단 센터 및 건강관리과를 방문한 수검자들 중 만 20세~69세까지의 여성들</p> <p>2) 연구 방법</p> <p>① 설문지(자가기입식)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 ; 연령, 평균가계소득, 학력, 결혼상태 등 • 유방질환에 대한 가족력 및 과거력 ; 가족이나 친척 중 유방암을 앓으신 분이 있는지의 여부, 본인이 유방 조영법과 의사의 이학적 검사를 받은 경험의 유무 및 그 이유 등 • 유방자가 검진법에 관한 사항 ; 유방자가 검진법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및 알게 된 경로, 유방자가 검진법을 정확하게 배운 적이 있는지의 여부. <p>유방자가 검진법을 시행한 과거력 및 시행여부에 따른 이유, 유방자가 검진법을 시행하는 시기 및 유방자가 검진법의 단계로 구성하였다.</p> <p>② 통계는 SAS Soft Ware를 이용하여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대상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파악 • 유방자가 검진의 인식 및 실천정도에 관한 빈도 제시 및 시행여부에 따른 이유 • 유방자가 검진을 시행한 사람들에서의 자가 검진의 단계별 시행 빈도 제시 • 유방자가 검진의 시행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과의 특성 차이(카이제곱 검정) 및 그 경향성 파악(Mautel-Haenzel, 카이제곱 검정)을 시행하였다. 						

3. 연구 결과

1997년 12월 1일 ~ 1998년 2월 28일까지 서울의 모 대학병원 두 곳의 종합건강진단 센터 및 건강관리과를 방문한 수검자들 중 만 20세~69세까지의 여성들 412명을 대상으로 유방 자가 검진의 인식 및 시행 정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- ① 우리나라 20~69세 여성들에서 미국 암협회 지침대로 유방 조영법과 유방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받는 비율은 각각 8.19%와 4.13%에 불과했다.
- ② 유방자가 검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77.4%였고, 알게된 경로는 대중매체가 83.3%로 압도적이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, 기혼, 고학력,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유방자가 검진을 아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유방자가 검진을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49.2%였으며 역시 대중매체에 의한 경우가 78.4%로 가장 많았다.
- ③ 유방자가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람들은 3.88%로 극히 저조하였고 시행 이유는 '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'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연령이 증가할수록, 기혼일수록 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④ 유방자가 검진 시행시 단계별 시행율은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4. 고 찰

유방암은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 여성들에 있어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. 유방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법 중 유방자가 검진은 간단하고,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어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, 1950년대 이래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으며,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환자 자신이 발견하게 된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게 되고, 유방암에 의한 증상들이 유두와 유방 피부의 이상 소견, 이상 분비, 통증, 종물 촉지 등 비교적 환자 자신들에 의해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검사로 생각된다.

본 연구에서는 미국 암협회 지침대로 유방자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은 3.88%로 극히 저조하며 유방자가 검진의 단계별 시행비율은 미국에 비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다.

유방자가 검진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3.16%에 불과했는데, 이는 대중매체로부터 유방자가 검진을 배운 사람들에 비해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유방자가 검진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비율이 더 많다는 국내 연구나,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배우려는 의지가 높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 의료진에 의한 유방자가 검진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